시내 한복판에 수소충전소…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소차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
저위험 드론 승인없이 비행토록
고도범위 확대 등 비행방안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총 171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남은 8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신산업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을 비롯해 드론 비행승인 기간 연장,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의 화장품류 분류, 콧속 마스크의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등 12건은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천㎥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도 편리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안도 내놓았다.

IoT(사물인터넷)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차량등록증정보 중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 정보제공으로 주유소에서 혼유방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 안내서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SKT, SK와이번스 한국시리즈 우승 '축승회' 개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 1층에서 열린 'SK와이번스 우승 기념행사'에서 SK텔레콤 박정호 CEO(왼쪽부터)와 류준열 SK와이번스 사장, 힐만 감독, 이재원 선수가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전기버스 9대 서울 도심 달린다

1711번 노선 9대 운행
연내 29대 추가 투입

전기버스 모습. /서울시

전기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도심을 관통하는 1711번 노선에 전기버스 9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연내 3개 노선(1711, 3413, 6514)에 29대의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전기버스는 기존 차령 만료에 따른 대·폐차 수요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대에서 공덕동을 오가는 1711번 노선에는 이날 전기버스 1대를 우선 투입한 후 20일까지 9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전기버스 운행 간격은 8~35분이다. 시는 해당 버스가 지나는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전기버스 도착 시간을 표출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간선노선과 지선노선의 외관 디자인 색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차량 상단 하얀 바탕의 라인에 '친환경 전기버스'를 표기해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버스는 주행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CNG버스 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지역 상권, 빅데이터로 한눈에"

'상권영향분석서비스' 정식 개시

성남시의 2018년 5월 기준 커피·음료 업종별 점포 당 평균 매출은 939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점포는 865만원이고, 프랜차이즈는 1,854만원이다. 주 고객은 20대 여성이며, 시간대별로 오후 1~2시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다. 여름에는 목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금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 내용과 같이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창업환경 속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 상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처럼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간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

이 서비스는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 정보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통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농식품부

내년부터 무·배추 등도 '농작물재해 보험'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벤츠코리아 사장, 서울시 명예시민 선정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15일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서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갖춘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업 시민의 대표이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22명을 선정했으며,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혹은 총 거주 5년 이상인 외국인이나 시 주요 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귀감이 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 2015년 9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실라키스 사장은 벤츠를 수입차 업계 리더로 이끌며 기록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한국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이뤘다. 모범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점과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양성운 기자 ysw@